

농촌 정주권 기반 창출 '농촌협약'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지역 활성화·국가 균형발전' 협약 체결

무주군

무주군이 지난 15일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지역 활성화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적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농촌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의 시동을 걸었다.

이날,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황인홍 무주군수 등 농촌협약 대상 20개 시장·군수가 참석한 가운데 농촌협약 추진경과와 향후일정 보고, 우수사례 발표 및 협약서 서명 순으로 진행됐다.

이로써, 무주군은 농촌협약 지자체로 최종 협약하면서 국비 265억을 확보, 22년부터 5년 동안 사업의 고삐를 당기게 돼 '살맛나는 무주건설'에 탄력을 받게 됐다.

무주군에 따르면 농촌협약은 농식품부와 지자체가 정책적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 지자체가 수립한 발전 방향에 따라 공동투자를 함으로써 농촌 정주권 기반을 창출하는 패키지 사업이다.

이번 농촌협약이 체결되기 까지 군은 농촌공간 전략계획(20년 계획) 및 생활권 활성화 계획(5년 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농촌협약위원회(위원장 황인홍 군수)를 구성하고 중간지원 조직 가동 등 역량을 집중해 왔다.

그동안 군은 농촌협약지원센터 설립과 실무회의, 민관 거버넌스 포럼, 전문가 등을 진행하면서 농촌협약 준비



무주군이 지난 15일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지역 활성화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적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농촌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의 시동을 걸었다. (왼쪽부터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황인홍 무주군수)

에 열정을 쏟았다. 군이 농식품부에 제시한 비전은 '무주를 무주답게, 군민을 행복하게' 군정지표 실현을 위한 '건강한 녹색성장 행복한 무주ING'이다.

질 높은 정주 환경을 조성하고 어디서든 편리한 생활거점 조성을 목표로 추진한다는 청사진을 갖고 있으며, 30분내 보건 교육 기초 생활서비스가 해결되고 60분내 문화 교육 의료 등 복합서비스 접근, 5분 이내 응급상황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역점을 들 계획이다.

군은 향후 5년간 농촌형 교통모델 사업, 기초생활거점 조성,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농촌중심지 활성화, 시·

군역량강화사업 등을 추진할 청사진을 세웠다.

농촌지역 인구 과소화 및 고령화로 인해 침체된 농촌지역에 활기를 띄우고 정주여건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황인홍 군수는 "행복한 무주 실현을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우리 지역에 사람이 찾아오고, 사람이 머무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된다"며 "이런 시점에 농촌협약 체결은 가뭄에 단비처럼 우리 무주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농림축산식품부와 그동안 애써준 관계자들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무주=전문선기자

전춘성 진안군수, 국가예산 확보 총력

기재부·농식품부·환경부 방문 지역발전사업 추진 필요성 설명

전춘성 진안군수는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총력전을 펼치고 나섰다.

전 군수는 지난 15일 농식품부, 환경부, 기재부를 방문해 곤충산업거점단지 조성사업, 용담호 생명수 탐방길 조성사업에 대한 당위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하며 국가예산 반영을 건의했다.

△곤충산업 거점단지 조성사업은 진안읍 마이산북부 일원에 사업비 200여 원을 투자해 곤충 사육기반, 공동집하·가공 및 유통·판매 통합지원 등을 위한 곤충산업 거점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곤충사육농가 수 전국 3위인 전라북도 곤충산업의 획기적 발전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다.

△용담호 생명수 탐방길 조성사업은 사업비 40여억원을 투자해 용담호를 활

용한 생태체험과 지역 농촌문화를 기반으로 국가생태문화 탐방로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용담호는 전북지역 150만명 생활용수를 책임지는 상수원댐이지만 많은 규제와 제약속에서 가능한 사업을 선별하여 신청한 만큼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를 건의했다.

전춘성 군수는 "곤충산업거점단지 조성사업, 용담호 생명수 탐방길 조성사업은 재경여건이 열악한 진안군에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다"며 "향후 정부 예산안이 확정되는 순간까지 전북도 및 정치권과 긴밀한 공조 시스템을 구축하여 국가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지역 소식 통

전춘성 진안군수, 윤일암 반일암 물놀이 안전점검

진안군은 지난 15일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아 윤일암반일암 계곡 물놀이 관리지역을 찾아 선제적으로 물놀이 안전점검에 나섰다

이날 점검에는 전춘성 군수, 김홍훈 경찰서장, 오정철 소방서장이 직접 현장을 찾아 인명구조함, 구명조끼, 안전표지판 등 물놀이 안전 시설물 정비 및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 수칙 준수 등을 확인했다.

또한 무더위 속에서 여름철 물놀이 이용객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안전관리요원들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노고를 격려했다.

군은 지난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물놀이 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안전관리요원 배치 및 안전시설물 등을 정비했으며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를 위해 출입구에 손소독제를 비치하는 등 감염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전춘성 군수는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코로나19의 재유행이 우려되는 상황인만큼 물놀이 이용객들이 방역수칙과 물놀이 안전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며 "안전한 물놀이를 위해 군에서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군 도시재생지원센터 장수시장 대표 상품개발 나서

장수군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장수시장 상인들의 역량 강화 및 활성화를 위해 장수시장 대표상품개발에 나섰다.

2022년 전북형도시재생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프로그램은 장수시장 상인 및 장수군 내 소상공인 지원자들이 지역 내 다양한 자원을 활용해 전문가와 함께 장수군 대표 음식 메뉴를 개발하는 것으로 상인들에게 전수 교육을 통한 조리법, 기술이전을 목적으로 한다.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지난 14일 내부 품평회를 열고 상인들이 각자 개발한 메뉴를 맛보며 대표 메뉴를 선정했으며, 이후 교육을 진행해 상인들에게 조리법을 전수할 계획이다. /장수=고판호 기자

서울 용산역서 만나는 '무주관광사진'

관광지·무주반딧불축제 홍보 위해 22일까지 전시전 개최

무주의 그림 같은 풍경을 담은 사진 전시전이 서울에서 개최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무주군과 무주관광협의회는 지난 11일부터 오는 22일까지 용산역에서 무주사진전시전을 개최하고 있다.

서울 용산역에서 개최 중인 무주관광사진 전시전은 무주군의 아름다운 언택트(비대면) 관광지와 다음달 27일부터 9일간 개최되는 제26회 무주반딧불축제 개최 홍보를 위해 추진됐다. 무주관광사진 전시전은 빼어난 풍광을 자랑하는 무주의 아름다운 경관들을 널리 알리고, 코로나 19의 장기화

로 힘들고 지친 서울 시민들에게 위로와 힐링을 주고자 기획 됐다.

이번 서울 용산역 주요 전시 작품은 무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무주사진가협회 회원들의 작품 20여점이 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용산역 이용객들이 무주의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하면서 잠시나마 편안한 휴식의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며 "무주의 관광명소를 널리 알리고 코로나로 3년 만에 개최되는 무주반딧불축제를 홍보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기자

진안군

진안군은 지난 15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지역 활성화 및 국가 균형발전 활성화를 정책 협력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농촌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전춘성 진안군수를 비롯해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농촌협약 대상 시장·군수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농촌협약은 농촌지역의 365생활권(30분 내 보건·보육 등 기초생활서비스, 60분 내 문화·교육·의료 등 복합서비스, 5분 내 응급상황 대응 서비스 시스템)조성을 위해 농식품부와 지자체가 협약을 체결하고, 지자체의 정책수립 방향에 따른 집중 투자로 필요한 사업들을 연계해 패키지 형태로 사업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진안군은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는 '2022년 농촌협약 공모사업'에 선정됐으며 2022~2026년까지 5년간 421억원(국비 290억원, 지방비 131억원)을 들여 진안군 전역을 대상으로 균형발전 등의 정책목표를 통한 다양한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주요과제는 △지역순환의 경제 문화 활성화(네트워크를 통한 지역사회 성장), △농촌서비스 강화를 통한 활력 증진(지역공동체 타진 조성), △아름다운 사회경관가치 재생(생태환경 및 경관가치 복원) 등이다.

주요 추진 내용은 진안읍을 중심생활권으로 하는 1개의 상위거점으로 10개 면을 기초거점으로 정하고, 상위거점에서 각 기초거점을 연계할 수 있는 통합플랫폼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교육, 보육 등 생활서비스의 질을 도심 수준으로 강화하고, 기초거점에서는 각 면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지역맞춤형 서비스 강화·육성, 상대적으로 낙후된 생활서비스를 향상해 균형적인 발전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홍삼한방산업과 국립지리원 산림치유원 등 다양한 산림자원과 연계한 치유 융복합 산업의 거점화와 재생, 친환경농업, 휴양관광 활성화 등 다양한 신성장동력을 개발하여 지역주민의 경제적 자립과 함께 인구 유입을 도모하고 미래산업인력 육성도 추진할 방침이다.

전춘성 군수는 "이번 농촌협약 체결을 통해 진안군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주도의 농촌정책 추진 기반을 다져 3.65생활권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더 나아가 인구감소·고령화·농촌지역 과소화 등 거시적 조류변화에 발맞춰 지방소멸위기에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 50대까지 확대

진안군은 여름철 재유행에 대비하여 18일부터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 대상자를 확대 추진한다.

현재 60세 이상자와 면역저하자에게 실시하고 있는 4차 접종을 50대와 18세 이상 기저질환자까지 접종을 확대한다.

또한 감염취약시설의 경우 요양시설, 정신시설뿐 아니라 장애인 시설과 노숙자 시설까지 접종 범위를 넓혀 보건소에서 직접 방문접종을 진행할 예정이다.

접종일정은 18일부터 당일접종 및 사전예약을 시작으로 8월 1일부터 예약접종이 진행된다.

예약방법은 온라인예약, 위탁의료기관 및 보건소 전화예약이 가능하며 접

종기관은 관내 위탁의료기관 8개소로 요일제 운영일에 맞춰 접종이 가능하다.

접종간격은 3차접종 후 4개월(120일) 경과 시점부터이며, 접종백신은 mRNA 백신(화이자·모더나) 및 노바백스 중 본인이 희망하는 백신으로 선택·접종이 가능하다.

리영현 감염병팀장은 "BA.5변이가 확산하면서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재유행이 시작됨에 따라 4차접종에 적극 참여하여 코로나 증증화로의 진전을 예방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며 "가장 확실한 방역수단인 손씻기, 마스크착용, 주기적 환기와 같은 기본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Here is a to Good a Pension

무주별빛카라반&팬션의 모토는 "머무는 모든이들을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는데 제1원칙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천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지친 일상을 떠나 자연과함께해보세요.

무주 별빛 카라반&팬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29(삼공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태욱), 010-9408-3582(오용선), 063-322-6668